光州日報

제1747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6월 15일 (음력 5월 20일) 목요일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서 남·북 참가자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기를 들고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15 정신으로 통일의 문 열자"

장대비 속 광주 통일대축전 개막…남·북·해외동포 한마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와 남북철도 시범운행 취소통보 등으로 식어가던 통일 열기가 '5월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북측대표단 147명과 해외대표단 152명, 4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관련기사 3·7·9면〉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거센 빗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산을 쓴 채 행사장을 찾아, 광주를 방문한 북측 대표단 등을 열렬히 환영했다. 또 북측의 '통일음악단'과 해외의 '금강산가극단' 등이 펼친 축하공연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관람했다.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000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자결을 결의하고, 민족이 화해협력을 합의한 '뜻 깊은 사건'"이라고 밝힌 뒤 "이번 축전을 계기로 광주시민이 선두에서 6·15 정신을 받들고 통일의 그날까지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는 '종이 비둘기' 615마리를 날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고, 보컬 14명 등으로 구성된 '통일음악단'은 흥겨운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사했다.

이에 앞서 북측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고려항공 KOR615편(187인승)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광주공항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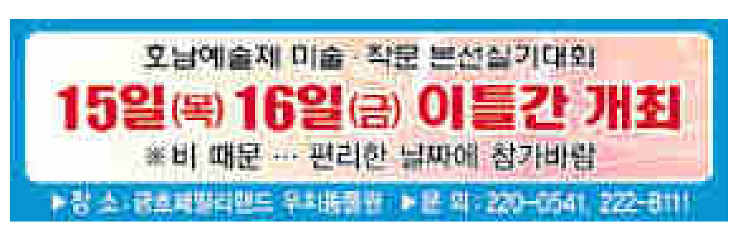
김영대 당국대표단장과 안경호 민간대표단장 등은 VIP룸 등에서 마중나온 백낙청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등과 2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광주공항 청사 밖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조국통일' '우리는 한 나라다' 등의 구호와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측 대표단을 환영했다.

북측 대표단은 승용차 3대와 버스 6대 등을 이용해 숙소인 무등파크호텔로 이동, 오찬을 한 뒤 오후 4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북측 대표단은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박경순 묘지 소장의 안내로 5월 영령들이 잠든 묘역 곳곳을 둘러보며, 광주의 5월 정신을 되새겼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무등기 야구 비로 순연

1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차전 배재고-화순고, 부경고-동산고, 부산공고-부천고 등 3경기가 우천으로 인해 15일로 순연됐습니다.



World Cup 16강 진출 '경우의 수'

▶관련기사 4·5·8·20·22·23면

16강 열쇠 토고가 쥐고 있다

프랑스·스위스, 토고 이기면 원점서 다시 시작

한국이 독일월드컵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토고에 2-1로 승리하면서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지만 프랑스-스위스가 0-0 무승부로 끝나 서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가지면서 한국은 조별리그 남은 두 경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한국은 오는 19일 오전 프랑스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는데 이 경기의 결과를 승·무·패 세 가지로 나눠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프랑스 꺾으면…남은 경기 관계없이 진출

한국이 프랑스를 꺾으면 승점 6점으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진출이 확정된다. 프랑스는 마지막 토고와 경기에서 이겨도 승점 4점으로 한국에 뒤지게 된다.

또 스위스는 토고전과 한국전을 모두 이기면 승점 7점으로 조 1위가 될 수 있고 한국은 조 2위로 16강에 간다. 프랑스와 스위스가 얻을 수 있는 승점은 최대 4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비기면…스위스전 비기거나 이겨야

스위스-토고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첫번째로 스위스가 토고에 이기면 한국과 스위스는 각각 승점 4점, 프랑스는 승점 2점이 된다. 토고는 승점 0점으로 탈락이 확정된다.

한국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스위스를 이기면 물론 16강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스위스와 비길 경우 토고가 프랑스를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지만 토고가 프랑스에 지면 토고를 제외한 나머지 세 팀이 모두 승점 5점이 돼 골득실차를 따져야 한다.

두번째로 스위스가 토고에 지면 한국은 승점 4점, 토고가 3점, 프랑스가 2점, 스위스는 1점이 된다.

이 때도 물론 한국이 스위스와 비기거나 이겨야만 16강에 갈 수 있고 진다면 골득실차를 따져야 한다.

프랑스에 지면…스위스에 반드시 이겨야

스위스를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다. 반면 한국이 스위스에 지면 무조건 탈락이다.

스위스와 비길 경우 스위스-토고 2차전 결과를 봐야 한다. 2차전에서 스위스가 토고를 꺾는다면 토고가 마지막 3차전에서 프랑스를 이겨줘야 한다. 토고가 스위스를 꺾으면 프랑스가 토고를 3차전에서 이겨줘야 한국이 16강에 간다.

토고와 스위스가 비긴다면 프랑스가 토고를 3차전에서 이기면 16강에 갈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밤의 월드컵

<15일>			
에콰도르	A	코스타리카	함부르크/22:00/KBS1·MBC·KBC
<16일>			
잉글랜드	B	트리니다드	뉘른베르크/01:00/KBS2·MBC·KBC
스웨덴	B	파라과이	베를린/04:00/KBS2·MBC·KBC

스코어 보드

프랑스	(1무) 0	G	0 (1무)	스위스
브라질	(1승) 1	F	0 (1패)	크로아티아